

諸人以各貨貨錢送廢人近五六千 ○有馬牛無驛驢每年阿蘭國貢象一 ○鯨魚或入近洋則飛船二十隻出去以蘆索作網千餘把充爲周圍飛船從以環圍一飛船以長鈞鎗直之又後急搖櫓去之他飛船又如此二十隻船輪回如此一食頃許鯨死浮水面則係之縶二十隻船曳而歸鯨之大者其長四十把小者亦三十七八把有則輒捉放日本近洋元無鯨皆聚於我國近洋日本人又往而捉之云到長崎島依例留三期又十五日後始許還歸自日本定一官人騎船載糧餅又定訓導四人(皆馬島人)沙工二人(皆馬島人)皆入我國船主張行船四月十四日發船到道馬崎水路十里留四日後發船到極田浦水路四十里留二日後發船到平戶島水路三百里翌日到豐本島一名一崎島水路五百里留十一日到此始聞我國通信使來到對馬島消息五月初三日發船到對馬島水路四百八十里馬島風俗極巧詐與日本有異漂人衣衾之自日本造給者欺而奪之長崎人以馬島人謂之盜賊蓋以有如此事故也通信使行次以四月晦日已來泊本島故得見我國人萬死一生之餘其喜可知馬島人多能朝鮮語來見者多云吾亦朝鮮人平居言語曰朝鮮曰日本未嘗以日本謂其本國蓋與日本有異非日本之純臣也到我國後聞東萊人言則馬島本我國地其人亦我國人子孫云如是也故所以馬島人來言我亦朝鮮人云也 ○馬島人譴言曰每年朝鮮國所送米包及雜物對馬島主折半竊盜薩摩島主告于關白對馬島主反陷以誣告薩摩島主因此被誅其子繼言又被誅其長孫繼爲薩摩島主其弟裝行包樣已入大坂城細陳其父其祖冤死及對馬島前後欺隱事狀因此對馬島主被誅薩摩島主之子爲馬島主年今十八云矣 ○依例留四十五日六月十七日發船到待風所水路六十里蓋自馬島之南船泊處距島之北待風所爲一日程而以其船隻故從水路迤東又向西抱馬島而周迴故水爲爲三百六十里自待風耶即又發船未及東萊夜半忽東風甚惡流于熊川加德島天成鎮水路四百八十里蓋自一崎島至對馬島四百八十里強自馬島至東萊四百八十里弱留加德如于日自加德發船七月十四日來泊海南前洋奉安千佛于大屯寺噫當其危急時吾其爲不偶之漂乎吾其爲魚腹之葬乎其生也幻也其死也亦幻也同歸於一幻雖無道力斯義也聞諸祖師雖狂鸞掀天驚濤如山彼自彼我自我捨去達了無怖悖但玉佛一千坐彈指精神以我斷指燃臂之獻誠岩沉沒則螺蟻微命固不足恤其於七百六十八坐佛何哉五內如焚四體不分賴天之幸漆夜之中得泊筑前國大浦島轉到長崎島鱗次歷平戶一崎島對馬島得返本寺此豈人力耶及哉至於泊都浦時湖口水後角森羅羅雖諳熟水路者到此當挽回以避其險而漆夜中如涉安流孰使而然哉況各島發船時祥虹護送異域靈々氓亦嘖嘖稱異此豈非佛力之尤彰明較著者哉凡遊一山一水亦有記述以傳諸後今耶經至險也耶到異域也其可無紀述爲紀其風土故津關之都會人物之繁華財貨之委積男女之雜沓無不畢紀以至於飲食之古行動之節漁採之微而無一遺漏以備後覽焉本州牧使李公聞之贈以詩故亦載於編末其詩曰扶桑曉日慈帆開半夜驚濤萬里回自是天教行道意倭人

爭說達摩來。

辛巳七月 日綾州雙峯寺僧楓溪記日本漂海錄終

〔註〕東濱金岸基先生珍孤本。寫本十九枚 版匡橫十四・七cm 縱十七・八cm  
 十行 每行二十字 四周單邊。

### 葆華閣の 槐山浮屠

第五卷 第二號 通卷四十三號

鄭 永 鎬

城北洞 葆華閣の 後園に 六・二五로 倒壞되어 있었던 石造浮屠一基가 지난 二月三日 故潤松全鑿弼先生의 大忌를 맞는 날에 再建되었다〔註〕이 浮屠의 原位置는 忠北 槐山郡 七星面 外沙里라고 傳해 지는 바 아직 그 곳 을 踏査하지 못한 까닭에 現地調査 및 移搬經緯에 關한 報告는 다음 機會 로 미루고 여기서는 다만 그 樣式 및 手法 등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이제 總高三・五m의 雄大한 塔을 바라보며 筆을 드니 平素에 先生을 모시던 同人들 다같이 感懷 가 더욱 깊어진다.

二

花崗石材의 八角 圓堂型浮屠로서 四 枚의 長方形 板石 으로 짜여진 地臺石 上에 놓여졌다. 構 造는 下臺上의 竿石 에 中臺를 놓고 그 위에 塔身, 屋蓋, 相輪을 받고 있는 通



式이다. 下臺는 上·下二石으로 八角인데 下石側面에는 一面二區씩의 眼象을 새기고 그 안에 귀꽃모양의 彫飾이 있으며 上石에는 伏蓮을 둘러고 八角마다 귀꽃을 彫刻하였는데 그 手法이 注目되었다. 上面에는 二段의 角形받침과 一段의 물딩이 있어 괴임을 삼고 그 위 높직한(高七cm) 또 하나의 괴임으로서 一石의 八角竿柱를 받고 있다. 竿石下部에는 側面에 雲紋을 陽刻한 一段(高十三cm)을 마련하고 그 위 八面에는 아무 彫飾이 없는데 各面마다 上狹下廣의 「엔타시스」를 나타냈음은 特異하다 할 것이다. 中臺石은 下部에 三段의 角形받침이 있으며 側面에는 仰蓮을 들렀는데 各面中央에 一瓣을 彫刻하고 隅角에는 細長한 蓮瓣을 한쌍씩 配置하였는바 그 手法이 流麗하며 特히 中央瓣內에는 花瓣裝飾이 있어 注目되었다. 上面에는 三段 괴임이 있어 塔身을 받고 있는데 八角塔身의 各面은 다시 額(三·五cm×四·五cm)을 들렀고 南·北二面에는 門扉가 있으며 中央에 자물쇠가 陽刻되어 있다. 塔身에도 竿柱와 같이 「엔타시스」를 나타내었다. 屋蓋石은 下面에 三段받침이 있으며 서까래의 構造는 없으나 추녀가 한층 높아졌고 轉角의 返轉도 端雅하여 各隅角마다 瓣처럼 생긴 귀꽃과 잘 어울리어 雄建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귀꽃의 모양과 彫法은 興法寺眞空大師塔의 것과 同樣式系라 할 것이다. 落水面에 개와골은 없으나 八角의 合角이 뚜렷하며 頂部의 八面에 들린 伏蓮도 美麗하다. 相輪은 現在 覆鉢과 寶珠二石으로 되어 있는데 覆鉢의 上下는 平面圓形이고 外周에 蓮瓣이 있으며 中間鼓部에는 二條線을 둘러고 그 中間四處에 四葉花紋을 配置하였다. 寶珠는 下部에 圓臺(高十七cm)를 마련하였는데 上, 下에 蓮瓣과 中央에 二條線을 둘러진 것이 覆鉢과 恰似하다. 그 위 三面은 上端이 磨損되어 彫飾을 알 수 없으나 各面二瓣씩의 蓮華紋을 새긴 것은 確然하다. 以上 塔의 構造와 樣式 手法 등을 紹介하였다. 十石으로 散在된 塔材를 마추어 再建하고 보니 어느 部分에서는 當初의 組立과 같지 않아서 多少 未恰感을 禁치 못한다. 年代는 雄麗한 모습이나 眼象 및 蓮瓣 등의 手法과 各部樣式으로 보아 高麗中期以前의 秀作으로 推定되는 바 이렇듯 貴重한 塔의 再建에 따르는 앞으로의 保護 施算이 철저히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實測値는……(單位 cm)

地臺石(高三一邊長二〇六) 下臺石(高五九一邊長六八)  
 竿石(高三七一面幅(上三一, 下三三)) 中臺石(厚三九一邊長五六)  
 塔身(高五二一面幅三五) 屋蓋(厚八〇一邊長七〇)이다.  
 끝으로 이번 工事に 있어서 酷寒에 始終 手苦하여 주신 長韓建設株式會社의 鄭復永氏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註) 지난 一月二四日 黃壽永, 秦弘燮, 崔淳雨, 諸教授를 비롯 鄭永鎬 등이 現場의 塔材調査를 하고 一月三十一日 着工 二月三日 竣工(一月三十一日 韓國日報, 二月一日 東亞日報, 二月三日 京鄉新聞, 大韓日報, 二月四日 韓國日報 記事參照)。이 외에도 浮屠一基와 塔材가 多少 整理되었음을 附言한다.

### 葆華閣의 石佛 二軀

黃 壽 永

葆華閣 後園에 配置된 石造物들을 一九五九年 三月에 간략하게 調査하였을 때 潤松先生은 主人許可도 없이 無斷侵入하였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아마도 整備되지 않은 現場을 찾은 것을 못마땅히 여기신 듯하였다. 그러나 先生은 이 곳 塔像에 對하여 入手하기까지의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며 혹은 百濟石佛이라 함에 샅다 하시고 혹은 閣後의 三層塔에 대하여는 日本財閥과 大阪에서 競買가 되어 엄청난 값으로 落札을 보았는데 막상 日本서 실어다 놓고 보니 기대와는 惝惝이더라고 하였다. 그 후 하루는 先生과 함께 이 곳을 찾아 石物을 돌아본 일이 있었는데 槐山原在의 高麗浮屠만 하더라도 몇번 復舊를 조른일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先生은 「가만히 있어」하시며 좀더 두고 보자는 것이었다. 先生 二周忌를 기념하고자 이 塔을 再建하면서 同人들과 더불어 感慨가 깊었던 까닭이 이와 같은 곳에 있었다.